

2005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평론집

인성의 심도와 문체의 다양화

최삼룡 저

연변인민출판사



2005

장백산보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평론집

수상작가작품집/평론집

장백산보드모아문학상

인성의 심도와 문체의 다양화

최삼룡 저

著者 崔三龍 目次 謝辭 序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崔三龍의 문단 활동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방복순

책임교정: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人性与文体 / 崔三龙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5. 12

ISBN 7-80698-586-7

I. 人... II. 崔...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 当代
文学—文学评论—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47152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长春市时风彩印有限责任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 × 1168 1/32 印张: 10.125 印张 字数: 270 千字

标准书号: ISBN7—80698—586—7/1·81(民文)

版次: 2005年12月第1版 2005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500 册 定价: 16.00 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저자력

1939년 2월 20일, 룡정시태생.

1963년 7월, 연변대학 어문학부 조문전업 졸업.

중학교원, 연변교육출판사 편집, 부총편,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소장 역임. 문학리론 연구원. 중국작가협회 회원. 평론집 《각성과 곤혹》, 《격변기의 문학선택》, 저서로 《중학생작문지도》, 《글짓기요령》, 《중국조선족문학사》(공저). 이외에도 《중국조선족문학의 각성》 등 논문, 평론, 수필 200여편이 있고 《20세기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친일문학권, 항일문학권을 편찬했음.

1999년 정년퇴직후 중국조선족문학평론과 중국조선족문학사 연구에 정진.

점점 더 빛나는 문학상

—머리말을 대신하여

2000년부터 해마다 가진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은 우리 중국조선족문단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문학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 중국문단에서도 지금까지 수상자의 개인작품집을 출판해주는 상은 유독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 상의 수상자는 또한 국외 작가까지 포함되다보니 국제성적인 문학상으로 국외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있다.

지난 5년동안 이미 세상에 나간 수상자들의 개인작품집은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여러개의 작품집이 우리 중국조선족문단에서 또다시 문학상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고 나아가서 전국 문단에서도 국가급상을 받게 된 작품집도 나타나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이 점점 더 빛나고있다.

올해에 또 7명 수상자들의 개인작품집이 출판된다.

광주모드모아그룹 리성일리사장의 드팀없는 후원으로 출판되는 수상자들의 개인작품집, 참으로 우리 문단의 행운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문학상을 지지해주시는 심양우성전자유한회사 황원수사장의 성의가 우리들을 감동케 한다.

이렇듯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은 우리의 문학과 기업인이 손을 굳게 잡고 정성을 다하는 상으로 앞으로도 그 영

향력이 점점 더 커질것이다.

이번 작품집출판을 위하여 연변인민출판사의 지도부에서
는 물심량면으로 협조가 컸고 담당편집선생의 수고가 많았다.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하는 진정이 고맙고 또 고맙다.

남영진

2005년 11월 29일

장춘에서

차례

점점 더 빛나는 문학상

—머리말을 대신하여1

김학철 립종유언고.....	1
김학철선생님에게서 들은 첫 문학강의.....	15
첫 론문의 지도교원 정판룡.....	25
잘 가라, 박화!.....	33
새 시기 새 도약을 꿈꾸는 우리 문단	40
중국조선족문학에서의 모더니즘.....	48
반일투쟁에 대한 사시적재현	62
민족의 정신실존에 대한 투시와 사실주의의 가능성.....	94
우리 소설에서의 지식인형상.....	115
농민생활의 변화와 최국철의 소설	133
리여천소설의 의식성향과 문학추구.....	149
방룡주소설의 인물형상조감	163
우리 시에서의 동일성상실의 주제	173
90년대 중국조선족시의 실험의식.....	184

향토에 태를 묻은 불멸의 시혼.....	212
백두산과 리성비의 시.....	224
재생의 꿈과 탈피의 모지름	239
사랑의 시인 김웅준.....	247
사랑의 시, 죽음의 사색	264
김파시탐구의 풍만한 결실.....	278
한국에서의 중국조선족문학연구에 대하여.....	292

김학철 립종유언고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을 하라

이 경구는 세인들에게 김학철의 유언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¹⁾에 이 경구가 《김학철의 립종유언》으로 발표된후 많은 인쇄물과 영상물들에서 인용되거나 소개됨으로써 인제는 세인들이 김학철의 문학을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꼭 리해해야 하는 《김학철학 제1과》로 되어가고있다.

하지만 이 경구가 립종유언으로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그 함의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며 또 이 립종유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일치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넘두에 두고 필자는 이 론고에서 김학철의 립종유언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적어보려 한다.

1. 좌우명으로부터 립종유언으로 되기까지

이 경구가 김학철의 립종유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는 김학철의 자제분 김해양씨의 《마지막 스무하루의 낮과 밤》에 그 근거를 두고있다. 부친의 최후 21일의 생활을 일기체로 쓴

1)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김학철연구회 편, 연변인민출판사 2002년 9월.

2 인성의 심도와 문제의 다양화

이 글은 처음에 《장백산》 잡지 2001년 6호에 실렸는데 후에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등 여러 책에 수록되었다.

이 글의 《9월 10일 월요일》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자가 있다.

유서를 타자하게 하시고 열다섯장에 일일이 서명을 하셨다.
유서에는 두마디가 첨부되었다.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을 하라

이것을 근거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구를 김학철의 립종유언으로만 알고있는데 사실 이 경구는 김학철의 립종유언이 기전에 모토(Motto) 즉 좌우명이었다는것은 모르고있다.

필자의 조사에 근거하면 이 경구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김해양씨의 글보다 약 3년전 《장백산》 잡지 1998년 1호에 벌써 발표되었다.

《장백산》 잡지는 1998년부터 《김학철초대석》이라는 특별란을 꾸렸는데 1호에 발표된 김학철의 산문 5편중 다섯번째가 잠문 《드래퓌스사건》이었다. 바로 이 글의 결말에 이 경구가 발표되었던것이다.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편안히 살라거든 불의(不義)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라거든 불의에 도전을 하라.

나의 이 모토의 유효기간은 죽는 날까지다. 그래서 이 글도 쓴것이다.

97년 10월

이것을 후에 발표된 김해양씨의 글과 대조해보면 《편안히》가 《편안하게》로, 《살라거든》이 《살려거든》으로 고쳐지고 제2행 《불의》가 《그에》로 고쳐졌음을 보아낼수 있는데 원칙적인 추고가 아니므로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경구를 《나의 모토》라고 밝히고 이 모토의 유효기간을 《죽는 날까지》라고 강조한 마지막 한줄의 글은 간과할수 없는것이다.

모토란 영어로서 우리말로는 신조 혹은 좌우명의 뜻으로 통한다.

이 잡문은 김학철이 매우 중시한 작품임이 틀림없다. 이 잡문은 그가 세상을 뜨기 3개월전인 2001년 6월에 손수 편찬한 산문집 《우렁이속같은 세상》²⁾에 수록되었는데 여기서는 소제목 두개를 취소해버렸고 원문은 1998년의 그대로이고 제목은 《드레퓔스사건》으로부터 《드레퓔스사건과 나의 모토》로 수정되었다. 이 제목에서 김학철은 이 경구가 자기의 좌우명임을 힘주어 내세우고싶었던것 같다.

좌우명이 다시 림종유언으로 되었다는데는 많은 의미가 있다. 첫째, 자기의 이 좌우명은 아주 쓸모가 있었다는 판단. 둘째, 아들 김해양 등 후대들도 이 경구를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하는 희망. 셋째, 세상에서 불의가 없어질 날은 멀고멀었으니 이 경구는 오래동안 쓸모가 있으리라는 확신.

2. 《드레퓔스사건》에서 받은 계시

2) 《우렁이속같은 세상》 창작과 비평사, 2001년 6월 P183.

4 인성의 심도와 문제의 다양화

김학철의 좌우명으로부터 림종유언으로 된 이 경구는 김학철 웅근 인생경험의 총화라고 볼수 있다. 여기서 구구히 레증할 필요는 없겠지만 불의와 도전할데 관한 그의 언론이나 문자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의미심장한 경구로 개괄하고 또 그것을 좌우명이라고 선언한 텍스트로는 그의 잡문 《드레퓔스사건》이 첫번째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김학철의 림종유언을 리해하는 작업은 드레퓔스사건에 대한 리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³⁾

드레퓔스사건이란 1894년 프랑스군대 참모본부에서 일어난 간첩혐의사건이다.

사건의 당사자 A.드레퓔스(Drefus)는 유대계의 포병대위였다. 1894년 12월 어느날 갑자기 프랑스육군의 비밀서류를 독일에 팔아먹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금고형을 받고 그 악명 높은 아프리카근해의 외딴섬 마도(魔島)에 갇혔다.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정은 진범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드레퓔스에게 들썩운 《반국가죄》 원판결은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불의에 분개한 작가 졸라(ernile zola, 1840-1902) 등 자유지식인들이 들고일어나 재심을 요구하였다. 1898년 졸라는 대통령에게 공개장 《나는 탄핵한다》를 보냈는데 그때 역시 드레퓔스를 옹호하는 립장에 섰던 클레망소(clemanceau, 1841-1929)가 자기가 주관하는 잡지 《문학, 예술, 사회의 려명》에 발표하였다.

이로부터 드레퓔스를 옹호하는 졸라, 클레망소 등 자유주의

3) 김학철이 세상을 뜬후 여러 책들에는 모두 《장백산》 1998년 1호에 발표된 대로 수록되었다.

지식인들과 재심을 반대하는 즉 드레퓔스를 반대하는 군부의 우익국수주의자들이 대립되고 공화파와 반공화파가 대립되는 정치적항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투쟁에서 졸라는 징역 1년, 벌금 3천프랑을 선고받았는데 그것이 베르사유법정에서 확정되자 그는 당일로 영국으로 망명을 했다. 1899년에 대통령의 특사로 졸라는 귀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철저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시 몇년을 더 기다려야 했는바 1906년에 와서야 드레퓔스는 최고법원의 판결을 받아 무죄로 판결을 받았고 소좌로 진급을 함과 동시에 군에서 퇴역하였다.

12년을 끈 이 사건은 프랑스공화국을 흔들었고 세계의 이목을 끈 사회정치적대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드레퓔스였지만 주인공은 작가 졸라였다. 시종 이 사건의 중심에 서있던 졸라는 비록 1902년에 뜻밖의 가스중독사건으로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의 마구 유린하는 군부와 법원의 우익들에 향하여 용감하게 맞서는 저항정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불의에 도전하는 지식인의 량지와 용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 사건중에서 졸라 등 지식인들이 보여준 불의에 도전하는 저항정신과 비판리성은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기자이며 작가인 베르나르 앙리레비(Bernard Henri LEVY, 1948-?)는 저서 《자유의 모험》 4)의 제 1절 《지식인의 력사가 시작된건 19세기말이었다(지식인과 그 명명식)》에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있다.

4) 《자유의 모험》 베르나르 앙리레비 저, 한지희, 김혜승 공역. 동아출판사, 1992년 3월 P19.

6 인성의 심도와 문제의 다양화

드레퓔스사건이전에는 지식인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 많은 남녀지식인들이 그 형용사를 다시 수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뒤집고 바꾸어놓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만 하나의 명사라기보다는 영광의 칭호, 하나의 상장을 바꾸어놓기 위해서는 드레퓔스사건의 결말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는 지식인들이다. 지식인일파다. 이러한 웨침속에는 일종의 도전이 내포되어있다! ... 그것은 바로 졸라의 태도다. 또 1898년 1월 14일부터 조르두 크레망소가 졸라의 지지를 받아 《문학, 예술, 사회의 려명》지에 발표한 그 유명한 《선언》, 이른바 《지식인선언》이라는 속에 내포된 태도다.

이렇게 레비는 졸라의 《나는 탄핵한다》를 《지식인선언》이라고 칭하고 드레퓔스사건을 《지식인 명명식》으로 칭하면서 《수많은 시인들, 작가들, 화가들, 교수들로 이루어진 그들은 이제 명시된 자격을 가진 공인으로서⁵⁾ 국가의 사건들속에 개입하기 위해 자신들이 펜이나 붓을 휘두르는것이 자신들의 권리라는 판단을 내린다》고 쓰고 졸라 등 기타 드레퓔스 지지자들과 볼테르(1694-1778)나 유고(1802-1885)와 다른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있다.

볼테르와 유고도 분명 가치를 위해 투쟁하였다...그러나 그 반면에 그들이 구상하지 못한,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유치하고 미친것으로 보였을 한가지 사상이 있다. 바로 작가에 대한 사상이다. 즉 작가의 사명은 정의, 권리, 선이라는 리상과 국가라는 현실 공간사이에서의 중재자가 되는데 있다는

5) 《공인》, 여기서는 공인(公人) 즉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상이다. 한편에는 국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정의와 진리와 선이 있다. 지상권, 가교권, 세속적인 공간과 리상으로 가득 찬 천국 그리고 바로 이 두 질서와 두 공간사이에 신흥종교의 새로운 사제들 즉 지식인집단이 존재하게 된다. 그들은 모두가 리상으로 가득 찬 천국이 중재자이길 자처하는 실추된 온갖 초월의 표징들을 스스로 다시 취한다.⁶⁾

알수 있는바 레비는 프랑스지식인의 계보를 드레퓔스사건으로부터 찾고있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프랑스지식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있으며 졸라와 그 지지자들이야말로 프랑스 제1대지식인이라고 평가하고있으며 이렇게 평가할수 있는 리유는 바로 졸라와 그 지지자들의 불의에 도전하는 정신과 작가로서의 사명감 각성에 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이렇게 보면 김학철의 좌우명과 립중유언이 왜서 드레퓔스사건에서 받은 계시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하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1997년 10월에 씌여진 《드레퓔스사건》에서 김학철은 《지나간 30년대에 내가 서울집을 뛰쳐나와 독립운동의 대렬에 뛰여든것도 이 <나는 탄핵한다>에 힘입은바가 크다》고 쓰고있다. 알수 있는바 김학철은 청소년시절에 벌써 드레퓔스사건으로부터 참다운 인생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것이다.

김학철은 일찍 80년대초에 있는 청년작가들과의 대화에서 드레퓔스사건이 자신에게 준 영향에 대하여 진술한 뒤 《인민이 헐벗고 굶주리는것을 보면 피눈물을 뿌리고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것을 보면 기뻐날뛰는것이 우리 작가들인것이다.

6) 각 주 4와 같음.

8 인성의 심도와 문체의 다양화

그리고 우리 작가들은 인류사회의 진보에 공헌한 고상한 인물, 영웅적인 인물들을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인류의 진보를 저애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신랄하게 비웃고 매섭게 채찍질하는것을 그 사명으로 알고있다. 이 숭고한 사명감에 고무되어 인간정신의 기사로서의 직책을 다하려고 땀물고있다.》⁷⁾라고 쓰고있다.

김학철이 정식으로 이 경구를 자기의 좌우명이라고 공개하기 10여년전에 쓴 이 글을 우리는 그의 립종유언의 보충재료로 간주할수 있겠다.

이상 재료들을 종합해보고 또 그 기초우에서 김학철의 인생과 문학을 회고해보면 이 경구가 생겨난 토양을 알수 있을뿐만 아니라 어째서 이 경구가 김학철의 좌우명으로 되었고 립종유언으로 되였는가를 터득할수 있을것이다.

3. 결출한 지식인 김학철

이상에서 우리는 김학철의 좌우명이 졸라의 작가정신, 불의에 도전하는 정신에서 받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분석했다. 이제 김학철이 이 잡문에서 언급한 유고, 꼬를렌꼬, 체르니썬스끼의 작가정신과 불의에 도전하는 정신에 대하여 더 분석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한가지는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졸라 등과 김학철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으면서 또 이질성이 있다는것이다.

그 공통점이란 졸라와 김학철은 모두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7) 《김학철작품집》 연변인민출판사, 1987년 6월, P213.

불의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에 도전했다는것이다. 줄라는 1년 남짓이 망명생활을 했고 금고형을 받았다가 풀려났고 유고는 19년의 외국망명생활을 했고 꼬롤렌꼬는 몇년의 강제추방을 당했고 체르니썩스끼는 21년의 감옥생활을 했고 김학철은 선후로 거의 15년의 수감생활을 포함한 22년의 정치박해를 받았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론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줄라 등과 김학철은 다른 점이 있다.

줄라는 자유주의지식인이면서 자연주의작가였고 유고는 인도주의지식인이면서 랑만주의작가였고 꼬롤렌꼬와 체르니썩스끼는 민주주의리상을 품은 사실주의작가였다면 김학철은 맑스주의리념으로 무장된 투사였으며 사실주의작가였다. 또 줄라의 도전대상은 프랑스공화국의 반유태국수주의자 혹은 반공화주의자들이었고 유고의 도전대상은 프랑스공화국의 군주제를 주장하는 우익이었고 꼬롤렌꼬와 체르니썩스끼의 도전대상은 짜리로씨야의 부패한 정치였다. 그러나 김학철의 도전대상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여전히 자생하고 때로는 만연하기도 하는 좌적인 정치와 개인숭배 그리고 여러가지 부정부패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학철의 정신존재와 주어진 생존환경은 줄라 등과 근본적인 이질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김학철의 불의에 대한 도전을 단계를 나누어 고찰해야 한다.

8.15광복전까지 김학철의 불의에 대한 도전은 조국을 빼앗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애국구국의 성전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적국에 끌려가서 몇년의 감옥생활을 하고 또 다리 하나를 잃었다. 이 시기 김학철의 신분과 립장은 모순이 없었다.